인간, 자연, 기술의 인드라망

서울식물원, 기획전 <다정한 균형: 서로를 비추는> 개막

EXHIBITION 서울식물원 이지연 엄아롱 장한나 구기정

2026 / 11 / 11

이재원

기획전 <다정한 균형: 서로를 비추는>(6. 23~2027. 5. 16 서울식물원)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공공미술을 매개로 자연, 인간, 기술이 맺는 관계를 탐구한다. 이지연, 엄아롱, 장한나, 구기정이 참여했다. 나노 구조 필름, 재활용 파이프, 플라스틱 암석, 3D 스캔 및 AI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 기술 사이의 다정한 균형은 무엇인가. 전시는 그 대답으로 각각의 구슬 하나하나마다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비쳐드는 화엄경의 『인드라망』을 제시한다. 세상 모든 만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함께 영향받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감상자는 전시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타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깨닫게 된다.

전시는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마다 한 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전시의 출발점인 '섹션 1. 귀기울기: 빛 소리'는 우리가 흔히 분리해 감각하는 시각과 청각이 실은 하나의 파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 섹션에는 이지연이 <얼룩무지개숲>(2026) 연작을 공개했다. 나노 패턴 복제 기술과 LED 라이팅, 3D 프린팅 등을 활용하여 빛과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했다. 원형 패턴을 새긴 반도체 웨이퍼 원판을 천장에 모빌처럼 달아 건물 내부로 들어온 자연광을 반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도록 연출했다. 미세한 격자 구조 패턴이 연속해서 배치되면, 표면에 부딪힌 빛이 꺾이고 산란하면서 무지개색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작가에게 패턴이 지닌 '반복성'은 미시 세계인 빛을 시각화하는 주된 메커니즘이다. 개별적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작은 패턴이 모여 커다란 면적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유기적인 현상이자 실체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지연 <얼룩무지개숲7> 나노필름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섹션 2. 종-횡단하는 대화’는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연결’에 주목한다. 이 무대에 오른 작가는 엄아롱. 작가는 어린 시절 재개발로 겪은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버려진 사물을 수집해 재구성해 왔다. <서로를 흐르는 것들>(2026)은 폐 파이프를 선형 구조로 교차시켜 존재 간의 네트워크를 형상화했다. 관람객이 파이프 관을 통해 소리나 목소리를 주고받도록 설계되어, 물리적 이동 대신 소리의 울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경험하게 유도했다. 바람 소리와 식물의 흔들림, 자연환경의 미세한 파동이 파이프 내부를 타고 흐르며 인간과 자연을 잇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생태적 공생의 의미를 전한다.

함께 전시된 <이사 그리고 이사>는 작가의 잦은 이사 경험에서 출발했다. 이사를 준비하고 짐을 옮겨 새로운 공간에 풀어놓는 과정이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 방식과 닮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가는 이러한 이동과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부재(部材)를 분리하고 해체한 뒤 재조립할 수 있는 모듈화된 구조로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의 형상은 코끼리, 라쿤, 앵무새 등 한국에서는 자연 서식하지 않는 동물이다. 제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 당한 처지를 외래종으로 은유했다.



엄아롱 <이사 그리고 이사> 콘크리트, 철, 스테인리스 스틸, UV인쇄, 우레탄 페인트 10×100×170cm 2026 서울식물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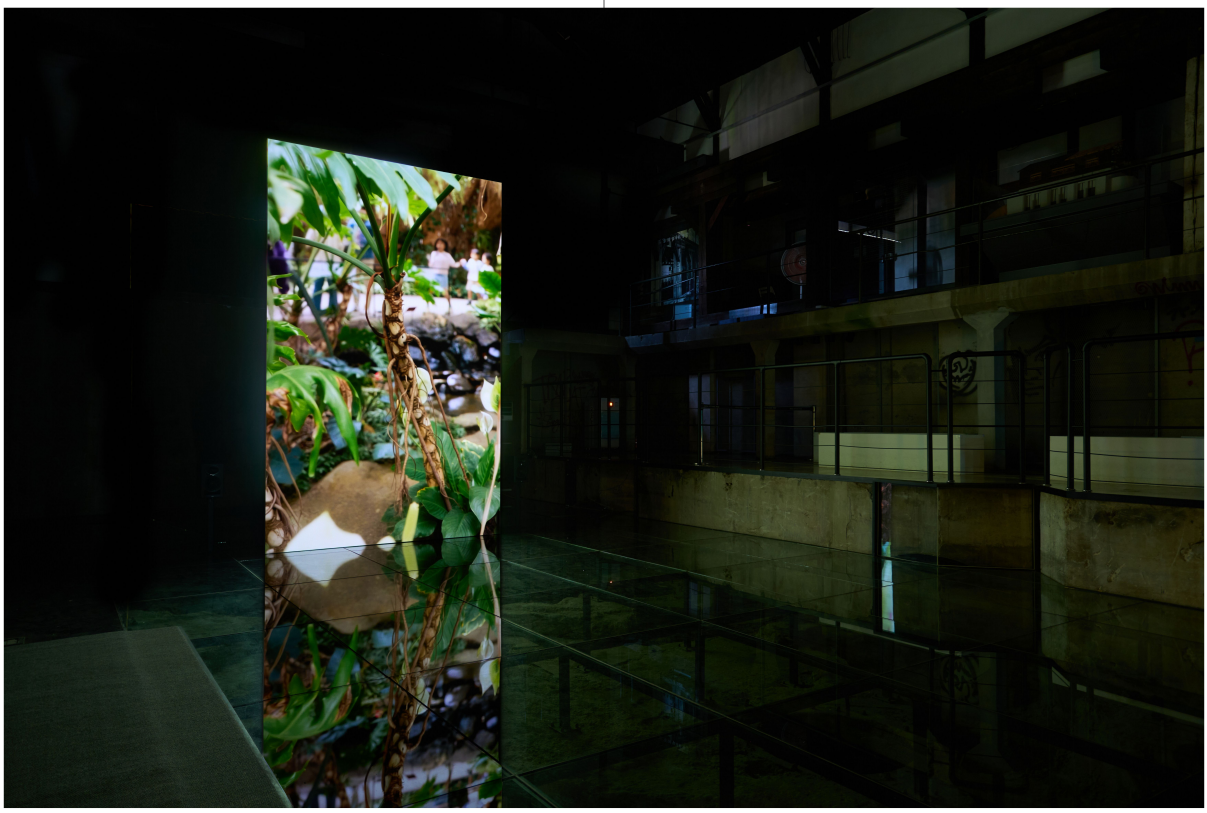
섹션 3. ‘감응하는 풍경’이 진행되는 서울식물원 온실은 열대와 지중해 기후 식물이 한 공간에 모여 서식하는 대형 유리 돔이다. 이번 섹션은 자연과 인공, 천연과 인조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오늘의 환경을 다룬다. 서로 다른 서식지의 식물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곳곳에 장한나의 <뉴 락(-New Rock)> 연작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는 인간이 자연에 버린 폐기물이 자연의 작용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현장 관찰과 과학적 조사, 수집을 거친 결과물을 작업으로 삼아왔다.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의 협업 분석을 거치는 등 물리적 데이터 기반의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작가는 풍화된 플라스틱이 돌처럼 변한 물질을 ‘뉴 락(New Rock)’-이라 정의한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풍과 태양열, 파도의 압력을 받아 암석화된 결과물이다.

온실 내 선보이는 <뉴 락 이눅슈크>(2026)는 이누이트족의 전통 돌탑 구조물인 ‘이눅슈크 (Inukshuk)’를 뉴 락으로 쌓아 올린 작품이다. 본래 이눅슈크는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통행로를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과거의 이눅슈크가 천연석으로 인간의 존재를 표시했다면, '뉴 락'으로 만든 이눅슈크는 인간이 생태계에 남긴 인공적 잔해를 증명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 열대관과 지중해관 4곳에 설치된 <다음 중 뉴 락 (New Rock)은?>(2026)과 <다음 중 천연석은?>(2026)은 식물 사이에 뉴 락과 실제 돌을 뒤섞어 배치한 작업이다. 관람객이 식물 속에서 뉴 락과 천연석을 직접 비교와 구별을 하게 함으로써, 인공물과 자연물의 외형적 경계가 희미해진 현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나아가 인류세 시대에 변형된 자연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도록 유도한다.



장한나 <다음 중 뉴 락 (New Rock)은?> 수집된 플라스틱, 패널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1982년에 준공된 마곡문화관(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근대 농업 인프라의 흔적과 시간의 결이 깊게 새겨진 국가등록문화유산이다. 섹션 4. ‘느린 시선으로’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대상을 깊이 관찰하는 정전의 시간을 제안한다. 구기정은 디지털 3D 스캔과 렌더링 기법을 활용하여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설치작 <모든 미생물은 각자의 리듬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마곡문화관 내부를 암전하여 오롯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연출했다. 작가는 서울식물원의 실제 풍경을 생성형 AI로 변환해 개체를 증식시키고, 이미지 재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와 노이즈조차 생동하는 움직임의 흔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공적으로 생성된 영상과 흐려진 이미지가 업스케일링 기술을 거치며 완성되는 작업은 생성과 손실, 실제와 가공의 경계를 유연하게 오간다.



구기정 <모든 미생물은 각자의 리듬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52초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다정한 균형: 서로를 비추는>전에서 네 곳의 장소, 네 명의 작가가 펼쳐낸 작업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이 유기적 균형을 이루며 상호 작용하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식물원의 생태 사이사이에 놓인 빛과 소리, 버려진 사물과 변형된 플라스틱, 3D 디지털 영상 등 인간 문명의 산물은 전시에서 자연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의 존재에 기댈 때야 비로소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대립 항이 아니고, 기술은 자연의 습성을 닮아있다. 인간과 자연, 기술을 잇은 연결의 도구로 예술을 제시한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과 생명이 맺는 관계를 체감하게 한다. 이 '다정한 균형'은 이 관계가 결국 단순한 연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공생으로 나아가는 '연대'로 끝난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이 있기에 존재해 왔다. 이제는 인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임을 다할 때라고, 전시는 역설하고 있다.